

# FTA BRIEF

'24년 미국 대선과 관세정책의 변화

- 한·중 對美 수출 경합 품목 분석과 FTA 활용을 중심으로 -

Vol. 04

June 2024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공정경제 공식 서명**

-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 14개국은 금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 \* 회원국들은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4개 분야 중 쟁점이 가장 많은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을 타결짓고 각 분야 협정을 체결했다.
  - \* (14개 회원국) :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 더불어, ‘24년 5월에 발효된 IPEF 공급망 협정(필라2)에 대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부, 과일류·식품원료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



\* 사진 출처: 연합뉴스

-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과일류 28종 할당관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되며, 품목별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 \*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 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18종
- 기재부 최상목 장관은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 ‘24년 미국 대선과 관세정책의 변화

## - 한·중 對미 수출 경합 품목 분석과 FTA 활용을 중심으로 -

-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대선 후보의 주요 관세 정책 확인
- 우리나라의 對미 주요 수출품 중 중국과의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 선정
- 한·중 경합 품목의 세율 정보 제공 및 FTA 활용 효과 분석

[ 글\_구지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



### (1) 들어가며



2023년 12월 對미 월간 수출액이 對중 월간 수출액을 추월하며, 우리나라의 작년 한해 對미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 흑자인 44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2003년 6월 이후 20년만에 우리나라의 월간 최대 수출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며 주요 교역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역대급 무역수지 흑자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상반된 공약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과 공급망 정책을 비롯하여 통상 정책까지, 주요 현안에 대하여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로 인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정책, 그 중 관세 정책의 경우 향후 우리 기업의 對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국인 미국의 대선을 앞둔 현재, 두 대선 후보의 관세 정책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한-미 FTA의 활용 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두 대선 후보의 對중국 견제, 공통기조



두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 중 특히 환경 정책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리쇼어링과 미국 내 제조업 역량 회복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과 친환경 산업 등 여러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따라서 재선 시 기존 정책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바 내연기관차 산업 진흥과 화석연료 공급 증대 등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정책을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계승한 형국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sup>1)</sup> 함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고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적 기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골자로 강도 높은 관세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적 기본 관세 인상은 FTA 체결국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록 두 후보의 공약에는 상당한 입장 차가 보이나 관세 정책에서만은 공통적인 기조가 보인다.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시장 우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차이나 쇼크(China Shock)’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만 왔다. 높아지는 중국과의 경쟁 속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핵심 공약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의 품목들은 우리나라의 對미 주요 수출 품목 중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다 판단되는 일부 품목들이다.

## (3) 미국 시장 내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 품목



우리나라의 對미 주요 수출 품목 중 중국과 시장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하단의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두 대선 후보에게 미국의 무역적자는 핵심 현안이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1 조건으로 무역적자 품목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 우리나라와 중국의 對미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을 HS 6단위 기준<sup>2)</sup>으로 선정하였다.

1) THE WHITE HOUSE (2024, May 14). Memorandum on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the Statutory 4-Year Review of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2) HS 품목분류표의 호(Heading)와 소호(Sub-heading)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없이 자국과 관련된 코드번호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는 협약(HS 협약 제3조)에 따름

**조건 ①** 2023년 미국의 무역적자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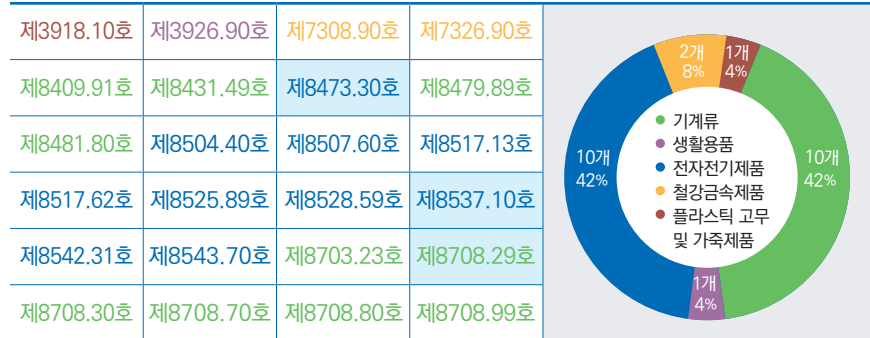
**조건 ②** 2023년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상위 100대 품목(HS 6단위 기준)

**조건 ③** 2023년 중국의 對美 수출 상위 100대 품목(HS 6단위 기준)

기준에 따라 선정된 품목은 HS 6단위 기준 24개의 품목으로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 (MTI 1단위 기준)이 주된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의 무역적자 품목이며 한국과 중국의 對美 수출 상위 품목(HS 6단위 기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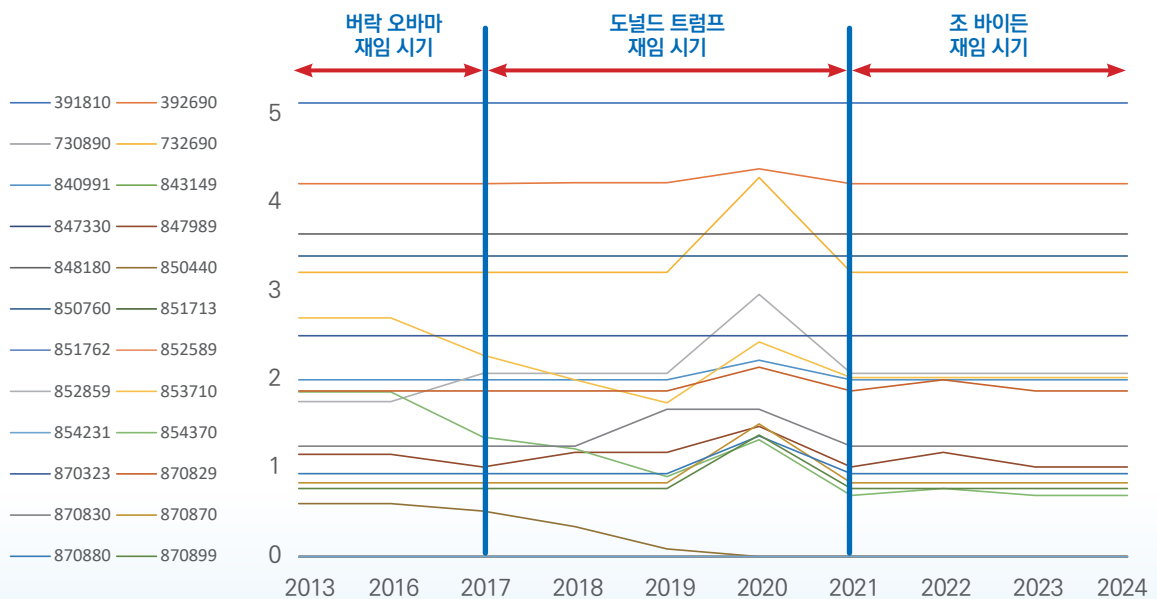


주) 제8473.30호, 제8537.10호, 제8708.29호는 두 나라 간 對美 수출 비중이 유사하여 경합도가 높은 품목임

◎ 자료 출처: 저자 작성

한-중 수출 경합 품목의 관세율 변화를 대통령 재임 기간에 따라 분석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선정 품목들의 최혜국 관세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0년에 변화가 급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재집권 시 동 품목들의 최혜국 관세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선정된 경합 품목의 시기별 최혜국 관세율 변화



◎ 자료 출처: USITC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또한 동 경합 품목들의 다른 주목할 점은 제8517.13호의 스마트폰을 제외한 품목에 對 중국 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sup>3)</sup>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8507.60호의 리튬 이온전지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될 때 최혜국 관세율에 7.5%의 관세가 추가 적용된다. 한국산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한-미 FTA를 적용받는다면 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중국산의 경우 약 1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 품목에 대하여 對중국 관세율을 최대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국 시장 내 한국산 리튬이온전지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수출 경합 품목의 세율 정보

MTI 1단위	미국의 HTS (HS 6단위 기준)	최혜국 관세율	한국산	중국산	
			한-미 FTA 특혜세율	對중국 HTS <sup>4)</sup>	對중 적용 세율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제3918.10호	4.2% ~ 6.5%	0%	9903.88.03	+ 25%
생활용품	제3926.90호	0% ~ 6.5%	0%	9903.88.03 또는 9903.88.15	+ 25% 또는 + 7.5%
철강금속제품	제7308.90호	0%	0%	9903.88.02	+ 25%
철강금속제품	제7326.90호	0% ~ 8.6%	0%	9903.88.03	+ 25%
기계류	제8409.91호	0% 또는 2.5%	0%	9903.88.03	+ 25%
기계류	제8431.49호	0%	0%	9903.88.01	+ 25%
전자전기제품	제8473.30호	0%	0%	9903.88.01 또는 9903.88.03	+ 25%
기계류	제8479.89호	0% ~ 2.8%	0%	9903.88.01 또는 9903.88.03 또는 9903.88.15	+ 25% 또는 + 7.5%
기계류	제8481.80호	2% ~ 5.6%	0%	9903.88.03	+ 25%
전자전기제품	제8504.40호	0%	0%	9903.88.01 또는 9903.88.03	+ 25%
전자전기제품	제8507.60호	3.4%	0%	9903.88.15	+ 7.5%
전자전기제품	제8517.13호	0%	0%	-	-
전자전기제품	제8517.62호	0%	0%	9903.88.04 또는 9903.88.15	+ 25% 또는 + 7.5%
전자전기제품	제8525.89호	0%	0%	9903.88.01 또는 9903.88.03 또는 9903.88.15	+ 25% 또는 + 7.5%
전자전기제품	제8528.59호	0% ~ 5%	0%	9903.88.03 또는 9903.88.15	+ 25% 또는 + 7.5%
전자전기제품	제8537.10호	0% 또는 2.7%	0%	9903.88.01 또는 9903.88.02 또는 9903.88.03	+ 25%

3) USITC의 China Tariffs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본 고에서는 2023년 미국의 무역적자 품목 HTS 8-10단위를 기준으로 확인함

4) 미국은 정책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제1-98류까지의 조항을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또는 추가 의무 부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99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MTI 1단위	미국의 HTS (HS 6단위 기준)	최혜국 관세율	한국산	중국산	
			한-미 FTA 특혜세율	對중국 HTS	對중 적용 세율
전자전기제품	제8542.31호	0%	0%	9903.88.02	+ 25%
전자전기제품	제8543.70호	0% ~ 2.6%	0%	9903.88.01 또는 9903.88.02 또는 9903.88.03 또는 9903.88.15	+ 25% 또는 + 7.5%
기계류	제8703.23호	2.5%	0%	9903.88.01	+ 25%
기계류	제8708.29호	0% 또는 2.5%	0%	9903.88.03	+ 25%
기계류	제8708.30호	0% 또는 2.5%	0%	9903.88.03	+ 25%
기계류	제8708.70호	0% 또는 2.5%	0%	9903.88.03	+ 25%
기계류	제8708.80호	0% 또는 2.5%	0%	9903.88.03	+ 25%
기계류	제8708.99호	0% 또는 2.5%	0%	9903.88.03	+ 25%

주: 해당 HS 6단위 내 모든 품목에 대하여 對중국 HTS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최종 HTS 단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함

© 자료 출처: USITC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4) FTA 활용 효과 및 한-미 FTA의 가치



두 대선 후보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핵심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는 현재,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어 주요 수출품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관세 인상은 필연적으로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경합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관세율 인상의 변화가 가장 컸던 제8708.70호의 로드 휠과 그 부분품·부속품의 미국 내 수입국 변화를 살펴보면 관세 인상의 효과를 알 수 있다

##### ● 제8708.80호의 최혜국 관세율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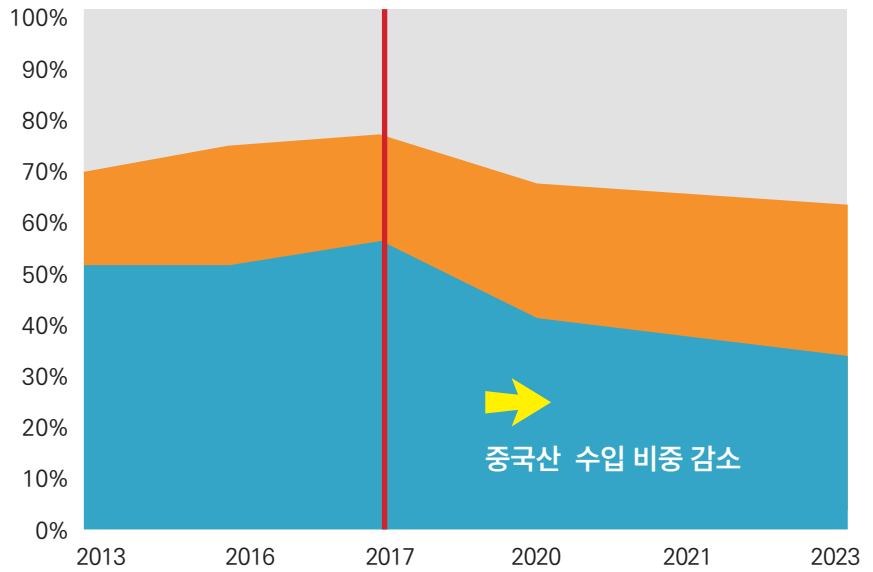
재임자	버락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증가율
최혜국 관세율 평균	2013	2016	2017	2020	80% (2020년)
	0.83	0.83	0.83	1.5	

© 자료 출처: USITC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제8708.70호의 경우 對중국 관세율이 부과되며 최혜국 관세율 인상이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액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점유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인하여 FTA 특혜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멕시코로 수입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제8708.80호의 미국내 수입국 변화



◎ 자료 출처 : 저자 작성

■ 중국 ■ 멕시코 ■ 그 밖의 국가

현재 경합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가장 낮은 對중국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리튬이온전지뿐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 품목에 대하여 對중국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리튬이온전지(제8507.60호)의 미국 측 수입 관세율은 하단의 표와 같다. 동 품목의 경우 한-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할 경우 3.4%의 세율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산 리튬이온전지에 부과되는 관세율(최혜국 관세율 3.4% + 7.5%)과 향후 인상될 對중국 관세율을 고려한다면 한-미 FTA 활용 효과는 그 이상으로 판단된다.

● 제8507.60호의 미국측 수입 관세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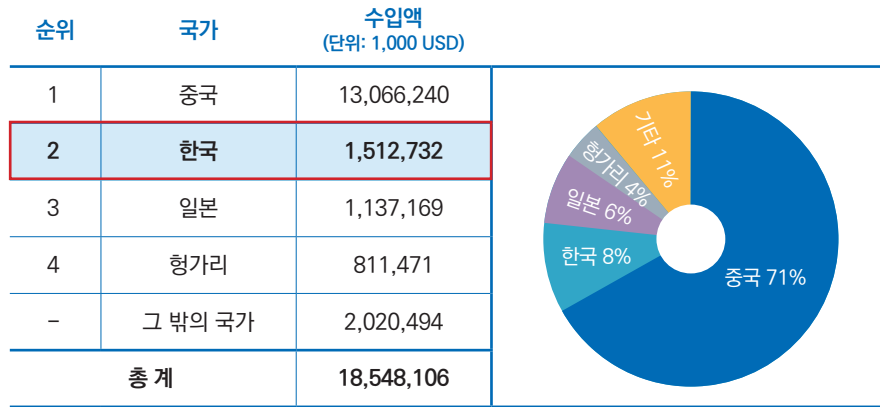
HS CODE	품목명	최혜국 관세율	특별세율 (한-미 FTA)	Non-NTR <sup>5)</sup>
8507.60.00	Lithium-ion batteries	3.4%	0%	4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023년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제1 수입국은 중국이며, 한국은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향후 부과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시장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격이기며, FTA를 활용한 수입품은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비교하여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있다.

5) NTR(Normal Trade Relation)이 아닌 테러국가 등 적성국가(쿠바, 북한 등)에 적용되는 관세

● 2023년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주요 수입국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통해 저자 가공

(6) 마무리하며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중요 교역국인 미국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두 대선 후보 간 상반되는 성향을 보이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merica First Trade Platform’를 주창하며 관세 인상을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한-미 FTA’의 존재이다. 정부가 이미 구축된 한-미 FTA 협의회 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 하듯 수출기업 역시 FTA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출품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변화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미 주요 수출 품목 중 중국과의 경합 품목들의 경우 두 후보의 對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관세율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미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 우위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동 고에서 제공하는 한-중 수출 경합 품목 및 관세율 정보가 우리 수출품의 FTA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FTA BRIEF

Vol. 04 | June 2024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